



##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 이 한 영 의원

“월평동산성 대전시문화재 지정해제 검토해야 합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학교 내 수영장 적극 개방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 이 한 영 의원

### ◎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 ·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교내 수영장 적극 개방 추진 등 3건의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월평산성 대전시 문화재 지정해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산성은 서구 월평동 만년교 남쪽 해발 137.8m의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으로 면적은 2만 7,838㎡에 달하며 1989년 3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의 성지로서 당시 격전지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월평산성은 현재 성벽은 거의 볼 수 없고 성을 쌓은 흔적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의 한 블로거의 월평동 산성 리뷰 사진을 보면 길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정표를 찾아보기도 힘들며 나무도 쓰러진 곳이 많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출발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산성은 다 무너져 없어지고 흔적 정도만 남아있기에 산성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말합니다.

이렇게 월평산성은 현재 큰 의미를 가진 역사유적이 남아있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성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주변 시민들은 많은 제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성이 위치한 서구 월평동 산 12-2번지 주변 지역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기준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구역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반경 200m에서 최대 300m까지의 구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규정하여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에서 7까지의 구역을 지정하여 1구역 같은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한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7구역은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개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 기준사항으로 한 변의 길이가 25m 이상이거나 건축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건축물의 경우도 심의대상이 되는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축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주변 지역민에게는 지역개발의 제한을 가져다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어 경제적, 산업적으로 매우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미미하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월평산성의 보존을 위하여 대전시민이 불편과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이장우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월평산성의 대전시 문화재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대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0년대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된 둔산 신도시는 대전광역시 주요도심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고, 대전시를 비롯한 중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도시 조성 이후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와 함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지구의 주차난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대전시의 현안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청 인근에는 교육청, 정부청사, 법원, 검찰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고 상권 밀집에 따른 유희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만성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기 신도시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둔산지구에 재건축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둔산지구 곳곳에 있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상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 자체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지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조금 아래로 돌리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사 주변에 있는 보라매공원 지하에 주차공간이 마련된다면 주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계획과 함께 보라매공원 지하주차장까지 현실화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매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논의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가시화된 성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전시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둔산지역에는 보라매공원 외에도 샘머리공원, 남선공원, 은평공원 등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은평공원같이 역세권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마련된다면 복잡한 도심의 환승지 역할까지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대전지하철 1호선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2호선 환승역 중 하나인 정부청사역은 더블역세권 환승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연계해 둔산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둔산지역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 지역상권 활성화, 도시철도 환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견해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수영장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학교 체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제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 체육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담론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결론적으로 학교 측에서 부담을 가지는 개방에 따른 관리책임은 지자체에서 별도 시설관리 주체를 지원하여 이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장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으며, 교육감님은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어려웠으나 추후 개방 및 시설관리비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학교에만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활성화를 통하여 개방에 대한 메리트를 학교 측에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점차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대전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아직 개방에 있어 학교 측의 부담이 많아 개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는 대전선화초 등 총 5개의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영장을 쉽게 개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체육시설보다 비교적 관리가 까다롭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 학교 측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 수영장을 직접 관리하며 외부인에게까지 개방을 하는 것은 학교장 및 교직원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수영장을 학교장의 직접운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통해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전국 시·도에서 학교 수영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 내에 총 48개의 학교 수영장을 학교 복합시설 개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43개의 학교 수영장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별 연간 평균 약 6천여만 원의 위탁사용료 수익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의 대전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시면 연간 약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수영장 5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곳은 학교가 직접 운영 중에 있으며 2곳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남선중과 같은 경우 오전 시간만 아이들의 생존수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오후 시간은 비어있어 충분히 시간대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학교 수영장들 또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나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수영장 한 곳을 증축하는 데에 25m 6레인 기준 약 7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민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수영장을 따로 증축하기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부지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위탁운영을 통해 학교 수영장을 개방한다면 주민 취미, 건강 증진과 예산 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위탁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학교 예산 운용에 있어 큰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의 협조를 통해 전문위탁운영자가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서는 월평동 산성 문화재 지정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과 도심지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산성은 우리 시 산성 중 규모가 큰 편입니다.

또 대형 유적이기도 한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사적으로의 승격이 검토될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인 걸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산성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행위의 적절성이 검토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시에서는 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와 그 허용 기준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 이런 규제들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규제됐을 때는 상당히 재산권의 침해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산성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월평동 산성의 재조사와 보수정비를 통해 많은 성곽들을 도심 속 시민의 휴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월평동 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시대에 축성된 산성으로 판단되고 대전에 남겨진 산성 중에는 대형 유적에 해당합니다.

또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기 때문에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2017년도 국가 사적 지정신청이 됐고 2019년까지의 승격을 위한 조사가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추가 발굴 요구로 유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엄밀하게 다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조사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존 가치나 문화재가 있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문화재청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도심지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둔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청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청사도 지금 의회 앞에 추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라매공원, 은평공원, 이런 넓은 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출입로를 외부로 놓고 학교로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서 학교 운동장은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우선



문제는 과도한 사업비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지, 또 민간자본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1기 신도시가 좀 전에 노후도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둔산 신도시를 시범사업에 지정받아서 1기 신도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송촌, 노은 이런 1기 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지구들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리나라 도시를 만들 때 대부분이 주차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런 것 때문에 도로도 좁게 하고, 옛날에 시청도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을 적게 넣은 이유가 시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기 신도시 문제는 저희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둔산에 대한 용적률 확대나 그리고 건폐율 확대, 또 개발여건을 위해서 수직증축이나 이런 부분 말고 전면 통합개발, 예를 들어서 크로바아파트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개발한다며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공간 배치나 이런 주차장 문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일부 월평동 지역이나 둔산지역 일부 지역에 있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층에 주택이 있는 이런 지역들의 필지를 합하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고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이 보고했을 때 6, 7필지만 합병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열어야 된다.

10개면 어떻고 50개면 어떠냐.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굳이 몇 개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둔산 재개발이나 발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도시는, 원도심하고 둔산 신도시나 또 지금 신도시 개발되고 있는 도안 신도시나 이런 곳들에 대한 균형발전이 앞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인허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둔산 신도시의 재개발이 어떤 시점에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어디 먼저 하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대전시 전체에 대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동시에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가 하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이런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단지 그래도 원도심의 중구나 동구, 대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이나 시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상대적으로 신도심이 생김으로써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돈 문제도 좀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둔산지역에 꼭 필요한 지금 도시 공원 내 주차장 설치의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 서구청하고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근본적으로 미래 일류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해서 도시가 쾌적하고, 주차난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단기 10년, 20년만 바라보는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과도한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은 100년, 200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1기 신도시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에 결합해서 우리가 한번 보다 면밀하게 미래를 향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재정 투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간자본이 와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 학교 내 수영장 개방을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결정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 수영장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및 학교 운동부 훈련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소관 수영장 중 대전선화초, 대전여자고, 대전탄방중 수영장은 초등 생존수영교육 및 학교 운동부 수영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어렵고 대전체육중·고 수영장은 수영, 핀수영, 근대5종 등의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들의 훈련현장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남선중 수영장은 주로 초등 생존수영을 위하여 인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 방과 후 및 일과시간 이후의 수영장 개방과 위탁운영은 타 시·도 사례와 학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